

“광주의 ‘시선’ 내 문학적 지향점과 유사”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에 8억원

광주문화재단, 올 예술지원사업 163건 선정

조선대 문창과 교수 부임 평론가 신형철씨



조선대 문창과 교수로 부임한 신형철씨는 “비평은 하나의 의미로 단정할 수 없는 다의적인 글쓰기”라고 말한다. (조선대 제공)

“평론은 함부로 말하지 않는 연습”이라고 말하는 이가 있다. 비평은 문학작품을 근거로 하는 글쓰기이므로 말과 글을 정제해야 한다는 의미다.

‘제2의 김현’이라는 찬사를 받는 평론가 신형철(38) 씨는 “누구도 자신의 글이 정답이라고 확정할 수 없는 글쓰기가 비평”이라고 덧붙인다. 스스로에 대한 엄격한 검열은 성급한 이해와 단정을 막아주고, 타자가 참여할 수 있는 여백을 제공한다.

신형철씨가 ‘문향(文香) 빛고을에 풍지를 틀었다. 조선대 문창과 교수로 임용돼, 3월부터 강단에 서고 있다. 이로써 소설가 이승우, 시인 나희덕이 재직하고 있는 조선대 문창과는 평론가 신형철이 가세하면서 명실상부한 ‘문학 트로이카’ 체제를 구축하게 됐다.

신 교수는 4월 전화 인터뷰에서 비평에 대한 소견, 광주에 대한 인상, 앞으로의 계획 등을 차분한 어조로 풀어냈다.

“비록 대구에서 태어났지만 광주에 대한 위화감은 없다. 오히려 광주가 지향하는 정치적 관점,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 등이 내 문학적 측면과 일치되는 부분이 있다.”

대구 출신인 그는 서울대 국문과와 동대학원 박사과정을 졸업하고 2005년 ‘문학동네’ 복호에 ‘당신의 X, 그것은 에티카’로 등단했다. 세상적인 잣대로 보면 소위 ‘잘 나가’ 문인이다. 조선대 문창과 교수로 임용이 됐다는 것은 그의 문학적 성취를 인정받았다는 방증이다.

그는 2008년 첫 평론집 ‘물락의 에티카’(문학동네)와 2011년 산문집 ‘느낌의 공동체’(문학동네), 그리고 이후의 글을 통해 비평의 독자성과 미학적성을 구현해온 대표적 평론가다. 문체가 유려하고 작품을 보는 눈이 예리한 그는 대중과도 적극적인 소통을 하는 평론가로 알려져 있다.

그가 비평의 길을 걷게 된 이유는 간단하다. 흔히들 시나 소설에 재능이 없어서 평론을 하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의 경우는 다르다. 비평이라는 본질적 매력에 빠져들면서 자연스럽게 이 길을 택했다.

“일찍부터 논리적인 세계에 대한 동경이 있었다. 일반적인 예술은 논리적인 세계를 넘는데, 나는 일찍부터 논리적 세계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 비평은 예술과 논리를 동시에 담아낼 수 있는 장르였고,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글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는 존경하는 비평가로 김현(1942~1990)과 황현산 고려대 명예교수를 꼽는다. 두 문인은 광고업계도 모두 목포 출신으로, 자신들의 문장과 사유로 후배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인기 평론가다. 그가 두 평론가를 ‘롤 모델’로 삼은 것을 보면 비평의 지평이 어떠하리라는 것을 예감할 수 있다.

그는 글쓰기라는 전통적인 방식 외에도 대중과의 소통에 적극적이다. 2013년 7월부터 문학동네 팟캐스트 ‘문학동네 채널1-문학이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다.

문화에 대한 관심과 향유 욕구가 높은 빛고을에서 그의 행보가 기대되는 건 이 때문이다. 올 10월 아시아문화전당이 완공되면 아시아적 가치, 아시아적 서사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조명될 것이다.

“문학은 사람의 마음을 가장 섬세하게 표현하는 예술 장르다. 그런 측면에서 아시아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문학만큼 좋은 도구가 없다. 한국 문학은 일본이나 중국 문학을 포함해 아시아 문학과 서사적, 학문적, 예술적 측면에서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그는 당분간 강의와 글쓰기에 전력을 예정이다. 연말께 그동안 쓴 글을 모아 비평집을 엮어낼 계획이다. 그는 “비평은 하나의 의미나 가치로 한정할 수 없는 다의적이며 신비적인 글쓰기”라며 “그 이유 때문에 더욱 겸손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문화재단은 2014년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5개 분야 선정 결과를 재단 홈페이지와 국가문화예술 지원시스템을 통해 발표했다.

심사결과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12건, 레지던스프로그램 4건, 문화예술공간프로젝트지원 5건, 지역특화거점지원 5건,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 137건 등 총 163건이 선정됐다.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은 8억 원의 예산으로 광주여성발모노 오케스트라, 극단푸른연극마을 등 5개 상주단체 이외에 극단크리에이티브드라마, 퓨전국악아이리아, 그린발레단 등 7개 단체가 비상주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총 3억 원을 지원하는 레지던스프로그램 지원사업

은 아트스페이스 미테-우그로, 아트주, 무등현대미술관, 은암미술관 등 4개 단체가 선정됐다.

문화예술공간프로젝트지원사업은 25개 단체가 신청해 김미숙뿌리한국무용단, 꿈꾸는 예술, 김원중의 달거리, 달빛오디세이, 극단 토박이 등 5개 단체에게 1억8400만 원을 지원한다.

신설된 지역특화문화거점지원사업은 (사)우리문화예술원, 순수, 광주현대무용단, 디딤돌, (사)한국국악협회 광주광역시지회 등 5개 단체에 2억 원이 지원된다. 광주문화재단은 6일 오후 2시 빛고을시민문화관 4층 다목적실에서 선정 단체와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한다. 문의 062-670-7442~5.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욕망의 여섯 가지 얼굴

다음달 18일까지 스페이스 K-광주



김기석 작 'Corner Inside-Trespass'

스페이스 K-광주에서 6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욕망의 여섯 가지 얼굴’전을 개최한다.

현대 사회의 규율과 체제 하에서 직설 화법으로는 표출될 수 없는 욕망의 심리학을 조명하는 이번 전시는 초상화의 형식을 빌어 극대화된 인간의 욕망에 대해 이야기한다.

장영원, 원재상, 남희승, 윤상운, 김기석, 윤정원씨 등 여섯 명의 작가들은 타자와의 관계 맺기를 시도하는 각기 다른 인물들을 등장시켜 내면에 숨겨진 무의식의 욕망을 환기한다.

장영원씨는 결핍된 욕망을 타인에게서 충족하려는 현대인의 헛된 시도를 ‘결핍의 몽타주’로 시각화하며, 원재상씨는 타자의 시선에 따라 굴절과 반사를 거듭하는 욕망의 왜곡 양상을 입체 조각으로 조형화한다.

모노드라마라는 극의 형식을 시각적으로 각색한 남희승씨는 일상의 에피소드를 짙막한 가상의 대본으로 재구성하여 욕망을 억압하는 현실과 허구적 환상과의 경계를 넘나든다.

작가들이 그려내는 욕망의 얼굴은 절제와 은폐, 과도한 제스처나 해체 등 서로 다른 몸짓과 표정으로 현대 사회라는 거대한 무대를 마주한다. 문의 062-370-5948. /김경민기자 kki@

금호아트홀, 예비 음악가 14명 발굴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은 4일 제5회 금호 주니어 콘서트 오디션 합격자를 발표했다.

지난 27, 28일 이틀간 금호아트홀에서 열린 이번 오디션에서는 최연소 합격자인 유지후(플루트·삼육초 4)군 등 14명이 합격했다.

이번 오디션에는 초등학생부터 대학원생까지 55명의 응시자가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플룻, 오보에, 클라리넷, 튜바, 성악 부문에서 경연을 벌였다. 3년 연속 오디션에 도전한 응시자도 많았다.

오디션에 합격한 연주자들은 오는 15일 합격자 오리엔테이션을 거쳐 7~8월 중 단독 콘서트를 갖게 된다. 분야별 합격자는 다음과 같다.

- ▲피아노=김창현 이명호 조민지 이다솜 조민정 임민경 ▲현악=김연경 김세은 김현정
 - ▲관악=김수미 유지후 류혜인 장현성 ▲성악=김예셀
- 문의 062-360-843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대구 출신...‘물락의 에티카’ 등 대중과 소통
이승우·나희덕 교수와 조선대 ‘문학 트로이카’
문학동네 ‘팟 캐스트’ 진행...연말 비평집 발간



“제가 한 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착한 음식을 만드는 정성 채널A의 마음입니다.

‘이영돈 PD의 먹거리X파일’은 불량 먹거리를 고발하고 좋은 재료로 정성을 다하는 ‘착한식당’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정직한 노력으로 원칙을 지키는 식당 주인의 마음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고 싶은 채널A의 마음입니다.

꿈을 담은 캔버스 채널A

채널A (먹거리X파일) 이영돈 PD와 착한식당 (빵드뽀빠)의 이호영 대표



[광주] 남구 서구 광산구 동구 북구 (CMB) 18
[광주] 동구 북구(광주방송) 20

순천 여수 여천 광양 고흥 14
나주 화순 보성 담양 구례 곡성 18

목포 신안 무안 강진 완도 16
해남 영암 진도 장흥

스카이라이프 13
IPTV 18

